

한국 부모-자녀관계 관련 속담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인식도

The Classification and Understanding of Korean Proverbs concern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조 복희*

Cho, Bok Hee

이 진숙**

Lee, Jin Sook

ABSTRACT

Korean proverbs concerning parent child relationships were collected from literature. 95 proverb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proverbs were categorized by meaning; value of child, affection toward child, boy-preference, positive-negative affection toward daughter, importance of child's education, child-rearing stress, identification of parent, authoritative control, and filial piety. The subjects (223 married men and 224 married women) were asked to indicate their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proverbs. The degree of agreement was 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variability in their understanding and the high degree of agreement on the proverbs. Demographic variables, age, educational level, and religion, appeared to be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subjects' agreement.

I. 문제제기

한국 가족은 해방과 6.25동란 등 사회적 격변기를 지나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의 외형적 측면 뿐 아니라 가족내의 인간관계 및 가치관의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산업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비교적 잘 적응해왔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서구적 지식과 가치의 급속한 도입의 와중에서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전통적 가치와의 충돌 및 가치관 혼재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

우리사회의 근대화 추진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서구적 지식의 확산이 서구 문화의 이식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으며 서구 이론의 적용을 가능케 할만큼의 문화적 변용도 있었다고 할 수 있으

*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 전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나, 대부분의 경우 서구 문화 및 지식체계의 수용은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요소와 결합하는 가운데 이중구조를 낳아 특유의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 서구 이론에 의해 이끌어진 연구들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채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물러 삶과의 괴리가 심화됨으로써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지식이 사회에 환원되어 활용되어 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유가효, 199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가족의 변화양상, 특히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전통적 가치가 오늘날 어느 정도 수용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부모자녀관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관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속담’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 남아있는 전통적 가치관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속담의 학문적 연구는 해방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언어학적 측면뿐 아니라 문학, 민속학, 교육학,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유지윤, 1994). 예컨대, 속담 자료의 채집 정리(이기문, 1986; 김도환, 1993; 한국토속문화수집회, 1984, 송재선, 1993)나 書誌學적 해석(김은엽), 속담의 구조분석(조재윤, 1988), 속담의 의미론적 연구(김충효, 1983) 등의 연구가 국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속담의 유형을 분류, 가치관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들로는 여성관련 속담(이을환, 1963; 김인자, 1964), 가정관계 속담(구희란, 1987) 및 성차별에 관련된 연구(김명희, 1990) 등이 있으며, 최상진(1980)은 속담에 나타난 한국인의 보편적 심리 특성을, 정선혜(1988)는 한국인의 교육관의 뿌리가 속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기존

에 채집된 속담의 의미 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둠으로써 과거의 가치 파악에 연구가 제한되어 있고, 오랜시간을 걸쳐 형성되어온 속담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공감되며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파악한 연구는 없으며, 특히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속담은 평범한 일반 민중으로부터 식자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향유되어온, 민족 전체가 공유하는 민족적 언어예술로서, 삶의 지혜나 교훈을 비유적·상징적으로 압축해 놓은 훌륭한 우리의 문화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속담의 개념을 단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수많은 서민의 인지 상정이 융결되어 발한 언사이므로 한 민족 한 국민의 心地性情을 표현하고 있으며, 도덕이나 신앙 까지도 엿볼 수 있는 겨례의 小照(김사엽, 1953: 1)”, “대체로 교훈이나 풍자를 하기 위하여 어떤 사실을 비유의 방법으로 서술하는 비교적 간결한 관용어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812)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속담이란 일반적으로 간결한 형식 속에 은유로서 민중의 생활 철학을 담은 사회적 소산으로, 향토성과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속담은 전통적 가치관의 양상을 잘 반영할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대중의 삶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가족이 사회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부자관계가 모든 가족내 인간관계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만큼 부모자녀관계에 관련된 많은 속담들이 구전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속담은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공감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현대의 가치와는 상반된 것 또한 나타나고 있어, 오늘날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는 부모자녀관계 속담 및 그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전통적 가치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

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남녀평등의 가치가 전면에 내세워지고 있으나, 속담에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가치가 매우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아들이 있어야 남들이 넘보지 않는다”, “다남은 천복이다” 등, 남아선호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속담, “맏딸은 살림밀친이다”라는 속담이 있는가 하면, “딸 셋 치우면 기둥뿌리가 패인다”, “딸은 두 번 서운하다” 등의 속담도 나타난다.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는 속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속담 역시 이미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사라진 것이 있는가 하면, 현대의 가치와 상반된 것이 있어서 그 인식 및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속담집에 채록된 속담 중 부모자녀관련 속담을 선택, 분석하여 내용별로 분류하고,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부모-자녀관련 속담이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 각 속담의 의미가 얼마나 공감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변수(연령, 성별, 교육, 종교)에 따른 동의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사회의 전통과 현대의 가치관의 연속과 단절,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파악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통과 현대의 가치의 혼재라는 문제의 실마리를 파악하고, 한국사회의 특성에 맞는 부모자녀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학력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속담의 세대별 인식 및 동의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젊은층에서 노년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유의표집하였다. 학력과 연령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전체의 반수 가량의 응답자는 질문지로 수집하고,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대상에게는 면접법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대상은 우편질문지와 전화면접으로도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조사는 1997년 10월 10일~10월 3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배부된 총 600부의 질문지 중 470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449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도 (%)
성 별	남자	223(49.9)
	여자	224(50.1)
	전체	447(100)*
연 령	35세 미만	133(29.6)
	35-49세	118(26.3)
	50-59세	74(16.5)
	60세 이상	124(27.6)
	전 체	449(100)
교 육	초등이하	53(12.0)
	중 졸	51(11.4)
	고 졸	145(32.3)
	전문대학	32(7.1)
	대학이상	160(35.6)
	전 체	441(100)*
종 교	서양종교	186(42.5)
	동양종교	113(25.6)
	무	129(28.7)
	기타종교	10(2.2)
	전 체	438(100)*

*missing case로 인해 전체 사례수(N=449)와 차이 있음

2. 부모자녀관계 속담의 구성과 측정

본 연구자가 속담집¹⁾ 및 관련연구 고찰을 통해 명사(부모, 자녀, 아들, 딸 등)와 속담의 의미에 기초하여 부모-자녀에 관련된 속담 155개를 1차 추출하였다. 그 다음 각 속담을 하나씩 음미하면서 1차 추출한 부모-자녀관계 속담 중에서 중첩되거나 그 의미가 부모-자녀관계에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일부 속담을 배제하여 총 95문항으로 부모-자녀관계 속담이 선택되었다.

선택된 속담은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그 의미에 따라 9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영역분류가 애매한 문항에 대해서는 아동학 전공 교수와 대학원생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분류된 9개 하위영역은 자녀의 가치(13문항), 자녀에 대한 애정(14), 남아선호(6문항), 딸에 대한 양가 감정(14문항), 자녀교육의 중요성(5문항), 양육의 어려움(12), 자녀의 부모 동일시(7문항), 절도있는 훈육(10문항), 효(12문항) 등이다. 이중 남아선호와 딸에 대한 양가 감정 영역은 상반된 의미를 갖는 영역이나 각 속담이 주는 의미 및 단어(아들, 딸)를 중점적으로 표현하는 정도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영역분류가 애매한 문항은 기타로 처리하였다.

속담의 인식을 밝히기 위해 각 속담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질문하였고, 아는 속담에 대해서만 동의 정도를 물었다. 동의 정도는 그 속담의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속담의 의미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자료분석

부모-자녀관계 속담의 인식 및 동의 정도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속담 하위영역별 동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60대 이상의 응답자가 70% 이상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58문항을 선별하여 하위영역별로 합산한 후, 일원변량분석 및 *t*검증 하였다. 60대 이상의 응답자를 기준으로 속담을 선별하여 분석한 것은, 이 연령층이 속담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속담이 소멸되고 있으므로 고연령층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속담의 동의 정도를 연령, 성별, 교육, 종교별로 분석하였다. 기독교와 카톨릭을 서양 종교로 불교와 유교를 동양 종교로 분류하였다. 서양종교를 믿는 대상자들은 구전의 속담에 대한 인식이나 동의정도가 동양종교를 믿는 응답자와 다르리라고 가정되었던 것이다. 또한 교육을 많이 받을 수록 속담에 대한 이해가 낮으리라고 가정하고 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령 집단은 35세 이하, 35~49세, 50~59,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연령 집단의 분류는 사회적 경험이 다른 세대간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이다. 즉 35세 이하 집단은 1960년대 이후에 출생하여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었던 시기에 성장한 세대로서, 이들은 비교적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핵가족에서 성장하였으며 합리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적 가치를 지니며 개성

1) 이기문(1986). 「속담사전」개정판. 일조각.

김도환(1993). 「한국속담활용사전」. 한울 아카데미.

한국민속학회편(1996). 「한국속담집」. 서문당.

송재선(1993). 「우리말 속담큰사전」. 교육출판공사.

을 중시하는 세대나 35세에서 49세의 연령집단은 서구적 생활양식을 직접 접하면서 살기 시작한 세대로 이질적인 문명에 맹목적으로 풀어간 세대이다(강신표, 1988). 반면, 50대 연령 집단은 대부분 해방전에 출생하여 사회적 혼란과 격변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한 세대로서,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장유유서, 효, 혈연증시 등의 가치를 선호하는 세대이다(김명자, 1996). 60세 이상의 노년층은 조선왕조의 생활질서가 존재한 가운데 생활하면서 해방과 6.25라는 사회적 대변혁을 직접 경험한 세대이다.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상이한 연령집단을 4분하여 속담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속담이 소멸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모-자녀관계 속담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식 빈도(%)와 동의 정도(M, SD)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가 응답한 95개 속담에는 알고있는 정도는 15.2%~97.5%로서 매우 다양하고, 동의 정도는 평균 2.57에서 4.50으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동의에 가까운 분포를 보였다(부록 참고).

1. 자녀의 가치

전통사회는 농경사회로 자녀가 많은 것은 곧 노동력의 총당이며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다산은 매우 가치롭게 여겨졌으며, 따라서 다산을 권장하는 속담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자식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는 의미의 속담도 나타난다. 한편 자녀의 가치와 관련하여 자녀는 부모에게 인생의 의미와 재미를 주는 존재인 반면, 힘들여 자식을 키워도 크고 나면 소용이 없다는 상반된 의미의 속담이 나타나고 있다.

이 영역의 13개 문항 중 4개 문항만이 인식율이 높게 나타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율이 낮았다. 자식이 순진하고 어릴 때는 부모에게 흡족한 느낌을 주지만 조금 자라면 부모 뜻을 받들지 않는다는 서운함을 반영하는 ‘자식은 품안에 들때 자식이다’(95%, M=4.0), ‘자식이 자라면 상전된다’(80%, M=3.7), ‘열두 효자가 악처 하나만 못하다’(76%, M=3.8)가 높은 인식율을 보이며, 동의 정도도 높은 편이다. 자녀의 긍정적인 가치를 반영한 ‘아이들이 아니면 웃을 일이 없다’는 72%의 인식율을 보이고 동의 정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M=3.8). 다산의 가치 혹은 다산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속담은 상대적으로 인식율이 저조하였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부관계보다 부자관계가 중시되고 자녀 출산이 부계가족의 절대적인 가치였던 만큼 다산이 행복의 조건으로 여겨졌고 자식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큰만큼,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자녀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나 그만큼의 보상은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변수(연령, 성별, 교육, 종교)에 따라 자녀의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2) 김명자(1996)의 연구에서는 신세대 부부와 중년기 부부를 35세 이하 집단(60년대 출생)과 40~55세 집단(해방전, 6.25 동란 전후)으로 설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방전 세대와 해방후 세대 구분을 위하여 50세를 준거로 재분류하였다.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은 낮아지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낮아진다는 연구(Steffensmier, 1982)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의 배경변수에 따라 부모역할만족도에 차이가 없다는 강희경(199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자녀에 대한 만족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부모의 일반적인 배경변수보다는 인성적, 심리적 특성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자녀에 대한 애정

속담에 나타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현신적이며, 그 사랑이 지나쳐 과잉보호적인 성향까지 보인다. 그에 비해 자식은 이러한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못 미쳐서 부모에게 서운한 존재로 반영되고 있다. 전체 14개 문항 중 9개 문항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열 손가락에 어느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을까’(96%, M=4.5)는 전체 응답자의 95% 이상의 인식율을 보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속담이며 동

의 정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이 ‘까마귀도 제자식은 예쁘다고 한다’(89%, M=4.3)는 속담으로 인식과 동의 정도가 매우 높다.

부모의 현신적 애정에 비해 자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반영된 속담인,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88%, M=3.7),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에게 주고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에게 준다’(80%, M=4.0) 도 비교적 높은 인식율을 보이며, 동의 정도도 높은 편이다. 이외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함합하다면 좋아한다’(78%, M=4.2), ‘흉년에 어미는 굽어죽고 아이는 배터져 죽는다’(75%, M=3.7), ‘자식 떼고 돌아서는 어미는 밭자국마다 피가 고인다’(73%, M=4.2), ‘한 어미 자식도 아통이 다통이’(72%, M=4.2), ‘곡식은 남의 곡식이 좋고 자식은 내 자식이 좋다’(70%, M=3.4) 순으로 높은 인식율을 보였으며, 동의 정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이렇듯 자녀에 대한 부모의 현신적 사랑을 반영하는 속담을 많이 알고 있고 동의도가 높은 것은 부모의 자녀 사랑이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경험적 진리이기 때문이다.

〈표 2〉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자녀에 대한 애정’ 관련 속담 동의점도

하위영역	구 분	빈 도	M(SD)	D	F 값
자녀에 대한 애정	35세 미만	36	36.69(3.96)		
	35~49세	45	35.82(3.60)	a	
	50~59세	26	38.85(3.91)	b	5.26**
	60세 이상	45	38.73(4.71)	b	
	전 체	152	37.41(4.26)		
	초등졸 이하	18	40.28(4.04)	a	
	중 졸	18	38.39(5.38)	ab	
	고 졸	45	36.40(4.00)	b	4.24**
	대졸이상	70	37.10(3.89)	b	
	전 체	151	37.42(4.27)		

D:Duncan Multiple Range test ** $p < .01$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동의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F=5.26$, $p<.01$)과 교육수준($F=4.24$, $p<.01$)에 따라 유의한 발견되었다(표 2). 연령이 50대 이상인 집단과 교육수준이 초등졸이하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준다는 속담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50대 이상이고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보다 전통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혼신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이 50대 이상인 집단은 해방전에 출생하여 사회적 혼란과 격변기속에서 동시대적인 경험을 공유한 세대로서, 해방후 세대와는 구별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세대이다.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속에서도 자녀를 희생과 혼신으로 자녀를 성장시켰던 반면,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지닌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연령층은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혼신에 동의하는 경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3. 남아선호

Williamson(1982)은 세계적으로 여아선호사상을 가진 종족은 매우 규모가 작은 모계사회로 불과 5개 뿐이라는 문화인류학자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남아선호사상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며, 특히 아랍 및 동남아시아에서 이 사상이 강하다고 하였다(김명희, 1990에서 재인용). 전통사회에서 남아는 여아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치로웠는데, 그 이유는 첫째, 가부장권의 계승이 남아에게만 가능했으며, 둘째 남아는 결혼하면 아내라는 노동력을 첨가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혼인으로 기존의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여아보다 가치롭게 인정되었고 셋째, 남성중심 사회에서 입신양명의 기회는

남아에게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남아는 성장하면 노후의 의존과 봉제사의 책임자가 되기 때문이었다(유안진, 1986:44-45). 따라서 전통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은 구전되어 오는 속담 속에 절실히 나타나 있으며, 현재에도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전체 6개 문항 중 3개 문항('아들은 내조상 묘를 돌보나 딸은 남의 조상 묘를 돌본다':75%, $M=3.8$, '아들이 있어야 남들이 넘보지 않는다':75%, $M=3.5$, '아들은 장가를 가면 반 남이 되고, 딸은 시집을 가면 온 남이 된다':72%, $M=3.5$)이 70% 이상의 인식율을 보이고 나머지 문항도 60% 이상의 높은 인식율을 나타내며, 보통 이상의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가치관이 뿌리깊게 지배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동양삼국은 유난히 多男을 행복으로 상징으로 하며 득남의 욕구가 강하다. 오늘날에도 사회의 외면으로는 남녀평등의 가치를 내세우지만 문화의 이면에는 남아존중사상이 뿌리깊게 박혀있다(이광규, 1975:172). 늦둥이 자녀를 둔 고령출산모 집단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출산 동기의 대부분이 남아선호사상이나 다자녀관 같은 전통적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강희경, 1994), 1994년 출생 성비에서 첫째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6명, 둘째아는 114.3명이나 셋째아는 205.9명, 넷째아는 237.7명으로(조선일보, 1996. 10.2), 성비불균형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남아선호 가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남아선호 의식은 연령($F=17.87$, $p<.001$), 성별($t=2.24$, $p<.05$), 교육($F=11.24$, $p<.001$), 종교($F=4.39$, $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3).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가 50대 미만인 경우보다 남아선호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인 경우,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이며, 동양종교를 가진 경우가 다른 집

단보다 남아선호적인 속담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즉, 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50대 이상의 해방전 세대가 남아선호적인 가치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연령층에서 남아선호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것은 이들이 보다 평등적인 가치관을 소유하여 남녀 차별적인 규범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보다 남성이 남아선호의식이

높은 것은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가족주의적이며 보수적이라고한 김재은(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불교나 유교를 믿는 집단이 서양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남아선호적인 속담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유교나 불교 신봉자가 보다 전통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표 3)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남아선호' 관련 속담 동의정도

하위영역	구 분	빈 도	M(SD)	D	F 값
남아선호	35세 미만	47	17.02(4.94)	a	17.87***
	35~49세	48	17.83(3.82)	a	
	50~59세	28	21.25(4.62)	b	
	60세 이상	59	22.57(4.42)	b	
	전 체	182	19.69(5.03)		
	남	89	20.57(5.00)		2.24*
	여	93	18.91(5.00)		
	초등졸이하	24	22.96(4.03)	a	
	중 졸	19	23.31(4.49)	a	11.24***
	고 졸	60	19.27(4.49)	b	
	대졸이상	75	17.99(5.02)	b	
	전 체	178	19.66(5.05)		
	서양종교	78	18.90(4.95)	b	4.39*
	동양종교	56	21.25(4.28)	a	
	무 교	40	18.80(5.80)	b	
	전 체	174	19.63(5.06)		

D:Duncan Multiple Range test ***p<.001 *p<.05

4. 딸에 대한 양가 감정

흔히 한국 전통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은 반대로 여아를 천대, 경시한 사상으로도 해석하나 남아선호사상이 곧 여아천시태도와 동일한 해석이 될 수는 없다. 남아의 가능성성이 존중되었던 것처럼

여아의 가능성도 존중되었던 증거를 전통사회생활의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혼인을 통해 가족의 세력이 확대될 수 있었는데, 세도가들의 정략결혼이 곧 여아의 공헌 가능성이었다. 둘째, 여아는 他門에 출가하여 살게 되지만,終身 할때까지 친가의 명예를 지키는 존재였다. 조선사

회의 혼인이 개인간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간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출가한 여성은 곧 ‘친가의 얼굴이나 대표자’로서 행동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아는 공리적인 면과 무관하게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였다(유안진, 1986:46-47). 따라서 속담에는 이러한 딸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는 속담이 나타난다.

한편 딸에 관련하여 부정적인 속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통사회의 보편적 태도가 여아보다 남아를 더 존중했고, 부계가족에서 출가외인이 될 입장에 있는 딸의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부계사회에서 딸에게 지나친 정을 주면 출가하여 시집살이를 잘 못할 것임을 우려하여 그 표현을 자제했을 것이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가정에서 혼비의 마련은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딸에 관련된 14개 문항 중 6개의 인식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맏딸은 살림 밑천이다’(95%, M=3.6)는 가장 높은 인식율을 보였으며, 동의 정도도 높은 편이다. ‘딸셋 치우면 기둥 뿐만 남는 것이 없다’(92%, M=3.8), ‘시집간 딸년치고 도둑 아닌 년 없다’(88%, M=3.3), ‘딸셋 치운 집에는 도둑도 안들어간다’(75%, M

=3.8) 등도 높은 인식율을 보였다. 그 다음이 ‘아들네 집에가 밥먹고 딸네 집에가 물 마신다’(71%, M=3.2), ‘며느리는 데리고 살아도 딸은 데리고 못산다’(71%, M=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문에 대한 체면과 혼수 예물을 적게 해 가면서집간 딸이 혹시라도 구박을 받을까하여 빚을 쳐서라도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심정이다. 그러므로 시집보낸 뒤 오는 경제적 타격 때문에 혼비에 관련된 속담이 등장했을 것이며(구희란, 1987), 이러한 속담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공감되고 있는 것은 과다혼수와 관련한 사회상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혼수와 관련된 속담 외에 딸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속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문항 외에도 ‘외손자를 귀애하느니 절굿공이를 귀애하지’(46%, M=2.8), ‘딸 반은 적고 딸 하나는 많다’(44%, M=2.7)의 경우처럼 동의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것은 오늘날 평등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딸에 대한 양가 감정’ 관련 속담 동의정도*

하위영역	집 단	빈 도	M(SD)	D	F 값
딸에 대한 양가 감정	35세 미만	44	19.41(2.69)	a	5.68**
	35-49세	55	19.71(2.82)	a	
	50-59세	28	17.64(2.32)	b	
	60세 이상	57	17.92(2.60)	b	
	전 체	184	18.77(2.70)		
	초등졸 이하	23	17.00(2.00)	a	7.69***
	중 졸	24	17.17(1.61)	a	
	고 졸	58	19.29(3.09)	b	
	대졸 이상	73	19.47(3.13)	b	
	전 체	178	18.78(2.99)		

D:Duncan Multiple Range test ***p<.001 **p<.01

*점수가 높을수록 딸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나타냄.

딸에 대한 양가 감정에 대해서 변수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F=5.68$, $p<.01$)과 교육($F=7.69$, $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고 성별 및 종교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4).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가 50대 미만이 경우보다 동의 정도가 낮고,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집단이 고졸 및 대졸이상 집단보다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 남아선호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50대 이상의 해방전 세대와 해방후 세대의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방후 세대가 딸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아선호적인 의식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고, 부모에게 있어서 딸도 아들못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해방후 세대의 경우 딸의 가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음을 반영한다.

5. 자녀교육의 중요성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속담 5개문항 중 4개 문항에 대해 인식 정도가 높고, 동의 정도도 매우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맹모삼천’(86%, $M=4$), ‘돈 모아 줄 생각 말고 자식 글 가르쳐라’(81%, $M=4.2$), ‘말을 낳거든 시골로 보내고 아이를 낳거든 공자의 문으로 보내라’(72%, $M=3.9$), ‘황금천냥이 자식 교육만 못하다’(70%, $M=4.2$)의 순으로 인식율이 높고, 동의 정도는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통사회에서 형성된 속담이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가치롭게 여겨지는 진리임을 알 수 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연령, 성별, 교육, 종교 등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전체 평균이 16.5(점수범위 4-20)로

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태도를 보여 집단간 변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세대와 성별, 교육수준을 불문하고 자식 교육은 한국인에게 공통적으로 공감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로 과학력사회로 진전되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율은 70년에 100%, 중학교는 85년에 100%에 도달하였고, 고등학교 진학율은 1993년에 90%가 넘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36.4%가 4년제 대학에, 18%가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것이다(통계청, 1996).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를 밝힌 연구(안병철, 1997)를 보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이 한국사회에서 상향이동의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자녀의 성격이 모가 나더라도 대학은 들어가야 한다는 부모들의 태도에는 사회적 지위 추구를 교육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명문대학에 입학하면 가문의 영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가 자녀교육열, 치맛바람 등의 교육문제로 부각되고 대학입시는 모든 가정의 가장 큰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6. 양육의 어려움

전통가족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속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는 존재이고 절대적인 애정의 대상이지만, 그만큼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노심초사하며, 자식을 많이 거느린 부모는 걱정이 많고 할 일이 많아 편할 날이 없다.

양육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12개 문항 중, '무자식이 상팔자'(96%, M=3.0), '가지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95%, M=4.2), '자식은 애물이라'(93%, M=3.6), '자식 많은 어미 허리 펼 날 없다'(85%, M=4.1) 등이 높은 인식율을 보인다. '무자식이 상팔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속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아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는다는데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느끼는 갈등과 불만이 적지않다는 것은 최근의 연구(현온강, 1994) 결과와 일치한다.

양육의 어려움에 있어서 변수별 차이는 연령($F = 7.62$, $p < .001$)과 교육($F = 6.78$, $p < .001$)에

따라 나타났다(표 5). 즉, 50대 이상의 집단과 50대 미만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으며,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중졸이하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간에 차이가 있어 중졸이하 집단의 동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방 전후 세대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50대 이상 집단은 해방 전에 출생하여 사회적 혼란과 격변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수의 자녀를 키우는데 평생을 헌신한 세대이다. 따라서 자녀에 대해 높은 애정과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자녀양육이 힘들고 부질없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 관련속담 동의정도

하위영역	집 단	빈 도	M(SD)	D	F 값
양육의 어려움	35세 미만	49	21.55(3.85)	a	7.62***
	35-49세	54	21.94(3.54)	a	
	50-59세	28	24.36(3.69)	b	
	60세 이상	60	24.18(3.51)	b	
	전 체	191	22.90(3.59)		
	초등졸 이하	24	24.42(3.22)	a	6.78***
	중 졸	21	24.33(3.86)	a	
	고 졸	56	22.66(3.33)	ab	
	대졸 이상	84	21.96(3.91)	b	
	전 체	185	22.89(3.82)		

D:Duncan Multiple Range test *** $p < .001$

7. 자녀의 부모 동일시

전통가족의 첫째가는 기능이 가계의 계승이라면, 둘째의 기능은 출산한 자녀를 家統이나 家風에 따라 양육하고 교육하여 전통사회의 규범이 요구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자녀의 사회화 책임에 있어서 부모가 일차적 책임을 져

으니, 父傳子傳 등의 교훈적 속언은 전통가족의 기능에서 자녀의 사회화가 얼마나 강조되었던가를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단순히 가계계승자를 출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고, 오히려 가계를 계승시킬 자격을 갖추도록 양육·교육하는 것이 가문을 일으켜 선대조에 효를 다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유안진, 1986:23-25). 자녀는 부모의

모든 행동거지를 따라하고 본받으니, 부모가 바르게 처신하고 자식에게 행동의 모범을 보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체 7문항 중, '아이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먹는다'(91%, M=4.0), '대대 곱사등이/그 아비에 그 아들'(73%, M=3.7)이 높은 인식율을 보이고 동의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동의 정도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표 6), 연령($F=3.48$,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고, 60대 이상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나머지 변수인 성별, 교육수준, 종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각 집단 평균이 11점 이상으로(점수범위:3-15), 모든 사람이 대체로 동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表 6〉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자녀의 부모동일시' 관련속답 동의정도

하위영역	집 단	빈 도	M(SD)	D	F 값
자녀의 부모 동일시	35세 미만	51	11.41(1.77)	a	3.48*
	35-49세	57	11.12(1.86)	a	
	50-59세	41	11.78(2.08)	ab	
	60세 이상	72	12.15(1.91)	b	
	전 체	221	11.65(1.93)		

D:Duncan Multiple Range test * $p<.05$

8. 절도있는 훈육

부모는 자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훈육과 관련된 속담에는 익애가 도리어 행실을 그르치게 함을 경계하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훈육에 관련된 10문항 중 5개 문항의 인식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미운 애한테는 옛을 주고, 귀여운 애한테는 매체를 준다'(91%, M=3.6), '회초리 아끼면 자식 버린다'(88%, M=3.9), '매로 키운 자식이 효성 있다'(83%, M=3.6) '외아들에 효자 없다'(74%, M=3.4), '귀엽게 기른 자식이 어미 꾸짖는다'(74%, M=3.7)의 순이다. 자녀의 부모 동일시이나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대체로 동의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이 영역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컨대, '달군 쇠와 아이는 때려야 한다'(68%, M=3.2)가 그것이다. 엄격한 훈육의 방법으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속담에 대해 동의도가 낮은 것은 오늘날 사회 전체적으로 훈육의 방법으로 체벌이 금기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련변수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F=4.15$, $p<.05$)과 교육수준($F=3.83$, $p<.05$), 종교($F=3.82$, $p<.05$)에 따라 유의한 발견되었다<표7>. 즉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양종교를 믿는 경우에 동의정도가 높다. 연령이 낮고 대졸이상의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동의 정도가 낮은 것은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종교를 가진 경우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은 보다 이들 집단이 전통적인 가치체계를 수용하고 있어 엄격한 훈육방식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효

〈표 7〉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절도있는 훈육' 관련속담 동의정도

하위영역	집 단	빈 도	M(SD)	D	F 값
절도있는 훈육	35세 미만	59	19.92(4.42)	a	4.15*
	35~49세	55	20.89(4.35)	a	
	50~59세	41	22.85(4.39)	b	
	60세 이상	66	22.15(5.18)	b	
	전 체	211	22.37(4.74)	b	
	초등졸 이하	23	23.17(5.16)	a	3.83*
	중 졸	31	23.00(5.05)	a	
	고 졸	70	21.37(4.26)	ab	
	대졸 이상	92	20.37(4.68)	b	
	전 체	216	21.37(4.75)		
서양종교	서양종교	93	21.51(4.95)	ab	3.82*
	동양종교	67	22.28(4.20)	a	
	무 교	53	19.92(4.83)	b	
	전 체	213	21.36(4.76)		

D:Duncan Multiple Range test *p<.05

전통적으로 효는 仁의 德을 실천하는 근본이 되고, 덕성함양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효는 백행의 근원이며 천지의 모든 인간생활의 지도원리이며 윤리관계이다(김명자, 1996). 효는 자기의 원천에 보답한다는 인륜과 부계가족의 구조적 원리로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애정표현과 의무가 효로 행해졌다. 효의 권면 및 실천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속담 12문항 중, 7개 문항을 70% 이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동의 정도 평균이 4점 정도로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식을 길러 보아야 어버이 공을 안다'(98%, M=4.5), '긴병에 효자 없다'(93%, M=4.0),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차다가도 떡이 생긴다'(88%, M=4.1),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느려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86%, M=4.1), '아버지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83%, M=3.7), '효성이 지극하면 돌위에 풀이 난다'(77%, M=4.0), '부모 죽은 뒤에 아이고 지고 말고 살아 계실 때 물 한 모금만 못하다'(77%, M=4.0)의 순으로 나타난다. 부계가족의 구조적 원리로서 전통사회에서 중시되었던 효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중심적 가치체계로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동의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F=5.00$, $p<.01$)과 교육수준 ($F=3.40$,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8). 연령이 높을수록 효의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특히 60대 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보여 50대 미만 집단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

가 나타났는데, 초등졸 이하인 집단이 고졸 및 대졸이상 집단보다 효의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60대 이상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곧 해방전 세대로서 50대 미만 세대와 효의 가치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연령이 60대 이상인 해방전 세대는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를 성장시키고 자녀를 출가시켜 현재는 노부모의 지위에 있는 세대로서 효에 대해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성인-자녀세대는 노부모 세대보다 효의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계가족적 원리 및 효의 원리를 중시하는 가족주의가치에 있어서 50대 이상, 초등졸 이하인 경우가 가족주의가치가 가장 높다고 보고한 육선화(1983)의 연구, 신세대 부부보다 중년기 부부의 효도관이 높다고 밝힌 김명자(199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성별 및 종교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딸보다 아들 특히 장남이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로서의 의무감을 강하게 느끼고(송현애, 1987), 부인보다 남편이 효도관이 높다는 연구(김명자,

1996)와는 차이가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효이다. 부계가족의 구조적 원리로서의 효가 조선조 사회에서는 사회적 윤리를 승화하였으며, 나아가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오늘날 효라는 개념이 많이 퇴화되었다 하더라도 보은적 개념이 존재하는 한 효의 개념은 결코 변한 것이 아니고 효행의 행위규범이 달라졌을 뿐이다(이광규, 1990:118-119). 따라서 효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있어서는 세대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효에 관련된 속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 공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효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체계로서 가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변화에 따라 효의 개념 및 실천 방법에 있어서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노정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세대차를 극복하고 현대적인 효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새로운 관계 규범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8〉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효' 관련속담 동의정도

하위영역	집 단	빈 도	M(SD)	D	F 값
효	35세 미만	30	30.53(3.47)	a	5.00**
	35-49세	35	31.14(3.27)	a	
	50-59세	30	32.13(2.57)	ab	
	60세 이상	49	33.08(3.09)	b	
	전 체	144	31.88(3.25)		
효	초등졸 이하	20	33.80(2.38)	a	3.40*
	중 졸	15	32.13(3.93)	ab	
	고 졸	44	31.09(3.75)	b	
	대졸 이상	64	31.75(2.76)	b	
	전 체	143	31.87(3.26)		

D:Duncan Multiple Range test **p<.01 *p<.05

IV. 요약 및 결론

속담은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관습을 잘 반영할 뿐 아니라 현재의 생활 속에서도 대중의 삶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는 속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속담 역시 이미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사라진 것이 있는가 하면, 현대의 가치와 상반된 것이 있음에 주목하여 전통사회에서부터 형성, 구전되어 오고있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속담이 오늘날 어느 정도로 인식, 동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종교에 따라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전통적 가치의 연속과 단절의 일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녀에 대한 가치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율이 낮았으며, 자녀의 긍정적 가치에 대한 인식보다는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부모 뜻을 빙들지 않는다는 서운함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인식율이 높고 동의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전통적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고 다산이 가치롭게 여겨졌으나, 자녀에 대한 기대와 가치부여에 비해 그만큼의 보상은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헌신적 사랑을 반영하는 속담을 많이 알고 있고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50대 이상이고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헌신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연령이 50대 이상인 집단은 해방 전에 출생하여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세대로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희생과 헌신으로 성장시켰던 반면,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연령층은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 사고를 지니고 있어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헌신에 동의하는 경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는 존재이고 절대적인 애정의 대상이지만, 자식을 양육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따른다. 양육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속담에 대해서 동의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50대 이상의 집단과 중졸이하 집단의 동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해방 전 세대의 경우, 자녀에 대해 높은 애정과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전통사회에서 남아는 여아보다 가치롭게 여겨졌다. 본 연구에서도 남아선호 속담에 대한 인식율이 높고, 보통 이상의 동의 정도가 나타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사회 외면으로는 남녀평등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화의 이면에는 남아존중 사상이 뿌리깊게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50대 이상의 해방전 세대가 보다 남아선호 가치를 지지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연령층에서는 그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평등적 의식의 보급으로 인한 변화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남아선호사상은 반대로 여아를 천대, 경시한 사상으로도 해석하나 남아선호사상이 곧 여아천시태도와 동일한 해석이 될 수는 없으며, 여아의 가치와 애정을 반영하는 속담이 나타난다. 딸에 관련된 속담 중 특히 혼비에 관련된 속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공감되고 있었는데, 이는 과다혼수와 관련한 사회상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혼수와 관련된 것 외에 딸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속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해방전 세대와 해방후 세대간의 차이가 나타나, 해방후 세대가 딸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아선호적인 의식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고 부모에게 있어서 딸도 아들못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해방후 세대에서 딸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통가족에 있어서 자녀의 사회화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었으며, 가계를 계승시킬 자격을 갖추도록 양육·교육하는 것이 가문을 일으켜 선대조에 효를 다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교육의 중요성 및 부모의 자녀 동일시를 반영하는 속담에 대해서는 인식 및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교육은 세대와 성별, 교육수준을 불문하고 공히 공감되는 가치로서,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을 출세나 간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팽배하여 학벌위주의 경쟁적이고 과열된 교육문화 현상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음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교육문화의 형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의식의 개혁과 현실적인 교육개혁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훈육에 관련된 속담에 대해서는 인식율이 50% 정도였고 대체로 동의에 가깝게 나타나 엄격한 훈육을 지지하는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양종교를 믿는 경우에 동의 정도가 높았다. 수험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를 포기해도 좋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권위있는 통제(authoritative control)를 할 때 자녀에게 바람직한 사회화 효과가 있다고 한다(안병철, 1997). 그러므로 부모는 아무리 성적이 중요하고 입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권위를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효는 자기의 원천에 보답한다는 인륜과 부계가족의 구조적 원리로서, 효의 권면 및 실천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해 인식율이 높고, 대체

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효의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전통사회에서 중시되었던 효의 가치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중심적 가치로서 지지되고 있었으나, 피부양세대인 노부모의 세대와 부양세대인 성인-자녀세대간에 효의 가치에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세대차를 극복하고 피부양세대와 부양세대에게 상호만족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관계규범 및 제도적 장치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의 자율과 개성을 존중하며 또한 관계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을 나아가고 있는만큼, 부모-기혼자녀세대간 관계도 서로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부모-기혼자녀 세대간 수직적 관계를 전제하면서 기혼자녀세대의 의무와 복종을 강조하는 효규범을 오늘날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며, 오히려 수평적 관계속에서 상호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이 중요하다고 하겠다(성미애·옥선화, 1997).

본 연구는 전통사회에서부터 형성, 구전되어온 부모자녀관계 속담이 현시대의 일반대중에게 얼마나 인식, 동의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부모자녀관계 속담의 수가 많은 관계로 관련된 속담 모두를 고려하지는 못했으며, 또한 속담 의미의 다중성으로 인하여 응답자가 파악하고 있는 속담의 의미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문헌고찰을 넘어 부모자녀관계 속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전통과 현대의 가치관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전래되어온 속담의 실제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일반 대중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조망하고, 변화하는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특히 해방 전후 세대간

의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의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가치의 혼재라는 문제의 실마리를 파악하고, 한국 사회의 특성에 맞는 부모자녀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1994). 고령출산모의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한국아동학회지*, 15(3) 169-180.
- 구희란(1987). 한국 가정관계 속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도환(1993). *한국속담활용사전*. 서울:한울아카데미.
- 김명자(1996). 신세대 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효도관 비교 분석. 노년기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모색. *숙명여대 건강·생활과학연구소*.
- 김명희(1990). 속담을 통해서 본 성차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자(1964). 한국속담에서 본 여성. *한국 국어문학연구 논문집(효성여대 국어국문학회)*, 15, 45-57.
-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문헌 및 조사연구-.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총서*, 1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충효(1983). 한국 속담의 의미소 연구. *부산대논문집* 5.
- 김태곤 외 6인(1996). *한국구비문학개론*. 서울: 민속원.
- 성미애·옥선화(1997). 효규범에 대한 사적인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5(3), 245-258.
- 송재선(1993). *우리말 속담큰사전*. 서울:교육출판공사.
- 안병철(1997). *사회변동과 가족*. 서울:미래인력연구센터.
-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가효(1995). 한국과 미국의 자녀 양육 방식의 비교. 조복희(편), *아동발달의 이해(pp. 366-389)*. 서울:교육과학사.
- 유안진(1986).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1988). *2000년대의 주인공인 오늘의 어린이*. 서울:배영사.
- 유지윤(1994). 한국 속담의 심리학적 분류.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1992). 자녀교육과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 이광규(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일지사.
- 이광규(1990). *한국의 가족과 종족*. 서울:민음사.
- 이기문(1986). *속담사전 (개정판)*. 서울:일조각.
- 이을환(1963). 한국 여성속담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2집」 숙명여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83-107.
- 이효재(1987). *가족과 사회*. 서울:경문사.
- 장덕순 외 3인(1971). *구비문학개설*. 서울:일조각.
- 정선혜(1988). 한국 속담에 나타난 가족주의적 교육관.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현온강(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조선일보. 1996. 10. 2.
- 조재윤(1988). 한국속담의 구조분석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홍기(1991). 유교와 가족. 가족학논집, 3.
- 통계청(1966). 한국생활지표.
- 한국 민속학회편(1996). 한국속담집. 서울:서문당.
- 현온강(1993).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
변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온강 · 조복희(1994). 부모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07.
- Steffensmier(1982). A Role Model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319-334.

〈부록〉 속담의 인식 및 동의 정도의 전반적 경향

하 위 영 역	인식 : 빈도(%)	동의정도: M(SD)
- 자녀의 가치 (13)		
1. 자식은 품안에 들 때 제 자식이다 **	426(95.3)	3.99(.87)
2. 자식이 자라면 상전된다 **	359(80.1)	3.70(.93)
3. 열두효자가 악처 하나만 못하다 **	339(76.2)	3.76(.92)
4. 아이들이 아니면 웃을 일이 없다	321(71.8)	3.78(.91)
5. 어미는 춥쌀만큼 벌어오고 아들은 말뚱 만큼씩 먹는다 **	287(64.5)	3.74(.92)
6. 상대방에 대해 쟁쟁 없으면 세간 못 모인다.	245(51.8)	3.46(.93)
7. 미인 한 걸음 하루에 쌩쌩 하지 않고 한 걸음을 줄여라	234(52.2)	3.25(1.56)
8. 자식과 물할은 짐스러운 줄 모른다	210(47.0)	3.64(.88)
9. 양반의 자식이 열놀이면 호쾌함 같다.	136(32.3)	3.37(.96)
10. 새는 하루에 겨 새롭게 놀은 있다	140(31.3)	3.59(.99)
11. 산 중 무봉은 머무다니 한간재마는 유자생지라	132(29.5)	3.81(.81)
12. 햇내 누에 고백미리 쟁이면, 난그 땅에는 놀노 면수가 없다	124(27.8)	3.59(.96)
13. 맙소순수라 자의	69(15.2)	3.32(1.09)
- 자녀에 대한 애정 (14)		
1. 열손가락에 어느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을까	430(96.2)	4.46(.69)
2. 까마귀도 제자식은 예쁘다고 한다	397(89.0)	4.29(.70)
3.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	393(88.1)	3.73(.95)
4.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에게 주고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에게 준다	358(79.9)	3.98(.89)
5.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활활하다면 좋아한다	351(78.3)	4.17(.75)
6. 흉년에 어미는 굶어죽고 아이는 배 터져 죽는다	334(75.1)	3.65(.94)
7. 자식 빼고 돌아서는 어미는 발자국마다 피가 고인다	327(73.0)	4.20(.82)
8. 한어미 자식도 아통이 다통이	323(72.4)	4.22(.79)
9. 곡식은 남의 곡식이 좋고 자식은 내 자식이 좋다	312(70.1)	3.40(.88)
10. 아이가 좋다니까 송자단을 삼는다	246(53.2)	3.61(1.05)
11. 부모는 자식이 한자하면 두자로 보이고 두자면 하면 세자로 보인다	245(54.7)	3.95(.86)
12. 부모 속에는 둘째처럼 놀아 있고 자식 속에는 양같이 놀아 있다	234(52.3)	3.33(1.08)
13. 한 자식은 미워도 열 자식은 넘지 않는다.	159(35.6)	3.25(1.16)
14. 뛰도 새끼 물 꿀은 둑님 놀다	156(34.9)	3.83(.77)
- 남아선호 (6)		
1. 아들은 내조상 묘를 돌보나 딸은 남의 조상 묘를 돌본다	336(75.2)	3.75(.92)
2. 아들이 있어야 남들이 넘보지 않는다	335(74.8)	3.51(1.17)
3. 아들은 장가를 가면 반 남이 되고, 딸은 시집을 가면 온 남이 된다	321(72.0)	3.47(1.11)
4. 영감 밥은 누워먹고 아들 밥은 앉아 먹고 딸의 밥은 서서 먹는다	310(69.4)	3.30(1.19)
5. 딸은 하나도 많고 아들은 셋도 모자란다	292(69.2)	3.61(.99)
6. 다남(多男)은 천복(大福)이다	299(67.0)	2.93(1.23)

하 위 영 역	인식 : 빈도(%)	동의정도: M(SD)
- 딸에 대한 양가 감정 (14)		
1. 말딸은 살림 밑천이다	424(95.3)	3.56(1.00)
2. 딸 셋 치우면 기둥뿌리 남는 것이 없다 **	410(91.9)	3.82(.90)
3. 시집간 딸년치고 도둑 아닌 년 없다 **	394(88.1)	3.34(1.10)
4. 딸 다섯 치운 집에는 도둑도 안들어간다 **	335(74.9)	3.76(.88)
5. 아들네 집에 가서는 밥 먹고 딸네 집에 가서 물 마신다 *	319(71.4)	3.20(1.14)
6. 며느리는 테리고 살아도 딸은 테리고 못산다 **	319(71.2)	3.10(1.10)
7. 딸은 두 번 서운하다 **	308(69.2)	3.61(.99)
8. 외 손자는 업고 친 손자는 걸린다	281(62.7)	3.05(1.05)
9. 딸 손자는 가을 벌에 놀리고 아들 손자는 풍별에 놀린다	215(48.0)	3.01(1.10)
10. 장보 딸 여사는 사윗감 고부터 본다	206(46.2)	3.21(1.05)
11. 외손자를 위해 하느니 절굿공이를 위해하지	204(45.6)	2.79(1.14)
12. 딸 밤은 석고 딸 하나는 많다	198(44.3)	2.71(1.08)
13. 보내할 시집 보내려면 배기 가지	194(43.4)	3.28(1.01)
14. 딸의 차반 새 닦아가고 며느리 차반 놓워야 둔다	141(31.5)	3.18(1.03)
- 자녀 교육의 중요성 (5)		
1. 맹모삼천	385(86.3)	4.00(.85)
2. 돈 모아 줄 생각 말고 자식 글 가르쳐라	359(80.5)	4.23(.70)
3. 말을 낳거든 시풀로 보내고 아이를 낳거든 공자의 문으로 보내라	320(71.9)	3.91(.82)
4. 황금 천냥이 자식 교육만 못하다	311(69.4)	4.16(.77)
5. 여식이 나거든 응진으로 보내라	111(24.8)	3.32(1.10)
- 양육의 어려움 (12)		
1. 무자식이 상팔자	431(96.4)	2.97(1.23)
2. 가지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	426(95.3)	4.22(.76)
3. 자식은 애물이라	416(93.1)	3.55(1.02)
4. 자식 많은 어미 허리 펼 날 없다	381(85.2)	4.08(.75)
5. 자식 걸 낳지 속은 못 낳는다	305(68.7)	3.99(.88)
6. 자식 없는 사람은 울지 않아도 자식 있는 사람은 운다	290(64.7)	3.64(1.00)
7. 부모는 문서없는 종이다	268(60.0)	3.60(1.09)
8. 자식 둘 부모 일 둘 새 같다	233(52.1)	3.97(.76)
9. 아이 본 품과 새 본 품은 없다	225(50.2)	3.68(.97)
10. 병어리도 어미가 되면 밭을 한다	200(44.6)	3.76(.93)
11. 새끼 이흡둔 소가 절마 벗을 날이 없다	192(43.0)	3.94(.80)
12. 자네 딸에 선 신간다	155(34.8)	3.50(.90)

하 위 영 역	인식: 빈도(%)	동의정도: M(SD)
- 자녀의 부모 동일시 (7)		
1. 아이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먹는다	406(90.8)	3.95(.86)
2. 대대 곱사등이/ 그 아비에 그아들	321(72.5)	3.73(.94)
3. 아이자라 어른된다 *	300(67.3)	4.00(.78)
4. 부모가 온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 효자	291(65.8)	3.98(.80)
5. 깊지씨와 자식 씨는 뜻 속인디.	246(64.3)	3.97(.81)
6. 도둑의 때는 벗어도 자식의 때는 못벗는다.	248(55.2)	3.82(.86)
7. 자식 자식은 기사가 된다.	230(51.7)	2.57(1.25)
- 절도있는 훈육 (10)		
1. 미운 애한테는 엷을 주고, 귀여운 애한테는 매체를 준다	406(90.8)	3.62(1.00)
2. 회초리 아끼면 자식 버린다	393(87.9)	3.87(.96)
3. 맘로 키운 자식이 효성 있다	371(83.0)	3.61(1.03)
4. 외아들에 효자 없다	330(74.2)	3.35(1.12)
5. 키업게 기른 자식이 어미 꾸짖는다	329(73.6)	3.69(.97)
6. 달군 쇠와 아이는 때려야 한다	304(68.2)	3.20(1.14)
7. 아이를 가르려면 부당 반에 아사 반이 되어야 한다	246(55.2)	3.94(.86)
8. 복과 아이는 철수록 친소리만 난다	240(53.8)	3.39(1.00)
9. 어린 아이 이해 말고 격드랑이 밟아나 잡아주여라	164(36.7)	3.59(.96)
10. 아이 치레 송잠 치레	132(29.6)	3.50(1.06)
- 효 : 효의 권면 및 실천의 어려움 (12)		
1. 자식을 길러 보아야 어버이 공을 안다	435(97.5)	4.50(.61)
2. 긴병에 효자 없다 **	417(93.1)	3.97(.92)
3.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392(87.9)	4.14(.88)
4. 한 부모는 열자식을 거느려도 열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	383(85.5)	4.06(.83)
5. 아버지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369(82.9)	3.71(.94)
6. 효성이 지극하면 둘위에 풀이난다	345(77.2)	3.95(.88)
7. 부모 죽은 뒤에 아이고 지고 말고 살아 계실 때 물 한 모금만 못하다	345(77.0)	4.34(.68)
8. 산 조상이 죽은 조상보다 무섭다	293(66.0)	3.52(.89)
9. 죽어서 상여 뒤에 따라와야 자식이라	258(58.4)	3.44(1.08)
10. 효자 끝에 불효나고 불효 끝에 효자나다 *	260(58.3)	3.09(1.11)
11. 효자 효녀가 나면 집안 망한다	138(35.3)	3.09(1.11)
12. 까마귀도 양풀밭에 먹는다	100(24.2)	3.38(.94)

주) 1. 흰바탕의 문항 : 하위영역별 동의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선택된 문항임
 60대 이상의 응답자가 70%이상 알고 있는 문항을 준거로 선택하였으므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본표상의 빈도(%)와는 차이가 있음.

2. '*' : 속담의 의미가 중립적이거나, 응답자마다 서로 다르게 의미를 해독할 여지가 있어
 하위영역별 동의 정도 분석시 제외함

3. '**' : 하위영역별 동의 정도 분석시, 역산한 문항임

4.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아이와 장독은 열지 않는다'는 영역분류가 모호하여 기타로 처리함